

KISTEP 브리프 | 정책



「과학의 황금기를 위한 교토 비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저자 | KISTEP 혁신전략기획센터 정여진·전부기·최창택



「과학의 황금기를 위한 교토 비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10.8. 혁신전략기획센터 정여진, 전부기 부연구위원, 최창택 센터장

요약문

- 미국 백악관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23차 STS 포럼('26.10.4.)에서 「과학의 황금기를 위한 교토 비전」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발표
 - **(제도 개선)**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비 지원 방식 다양화, 새로운 연구기관 모델의 시범 운영, 정부 내 메타사이언스 기능 구축, 과학적 무결성 기준 준수
 - **(초지능 활용)** 초지능(SI, Super Intelligence)을 연구 과정에 접목하고, 초지능 도구·데이터·컴퓨팅·실험시설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 확대
 - **(인재 양성)** 우수 학생·신진 연구자의 능력 중심 조기 지원, 장비 운용 인력의 현장경험 확대, 공동 학위과정·펠로우십·공동연구 장려
- 미국은 OSTP 보고서 「Science: A New Golden Age」('26.7.)의 연구체계 혁신 과제를 교토 비전으로 확장하고, 이를 자국이 이끈 성과로 제시하며 과학기술 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부각
- 또한, 과학을 위한 인공지능(AI)에서 초지능(SI)로의 전환, 메타사이언스 기능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연구제도 혁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

1 개요

- 미국 백악관은 일본 교토에서 열린 과학기술사회(STS) 포럼*을 계기로 과학기술정책 전환을 위한 「과학의 황금기를 위한 교토 비전(Kyoto Vision for a Golden Age of Science)」을 선언('26.10.4.)

*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Forum, '과학기술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며 2004년 출범한 국제 포럼으로, 매년 10월 교토에서 각국 장관·노벨상 수상자·기업 CEO·대학 총장 등이 과학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논의

- 제23차 STS포럼 연차총회(26.10.4~6.) 기간 중 각국 과학기술혁신 담당 장관이 회합하여 공동 선언문 형태로 발표

※ 포럼 전체의 합의문이 아니라 포럼을 계기로 모인 장관들 중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선언으로, 구속력은 없음

-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이 주도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이 지지국으로 참여

- 지지국은 미국의 동맹국을 주축으로 유럽 7개국(영국·독일·이탈리아·폴란드·그리스·불가리아·키프로스), 아시아·태평양 5개국(한국·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뉴질랜드), 중남미 2개국(아르헨티나·칠레), 중동·중앙아시아 2개국(UAE·카자흐스탄)으로 구성

※ G7 중 프랑스·캐나다, BRICS 중 중국·러시아·인도는 미포함(BRICS 회원국 중에서는 UAE·인도네시아가 참여)

2 「과학의 황금기를 위한 교토 비전」 주요내용

□ 문제의식

- 과학기술은 사회의 건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초지능(Super Intelligence, SI)*과 새로운 연구조직 방식이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434호('26.9.29., 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에 따라 미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신 '초지능(SI)' 용어를 사용

- 이러한 변화를 연구 생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도전적·혁신적 아이디어에 보상을 제공하는 연구비 지원체계 구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
- 이에 각국은 과학 생태계를 쇄신하고 지식 창출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수십 년을 '발견과 번영의 새로운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

□ 3대 추진 방향

① 연구제도 혁신 (Improving the Institutions of Discovery)

- (연구비 지원체계) 과학적 목적의 다양성을 고려해 장기 지원 과제(long-duration awards), 신속 지원 과제(rapid grants), 포상·챌린지(prizes and challenges) 등 다양한 연구비 지원 방식을 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
- (연구기관) 자율성·자원·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한 新연구기관 모델의 시범 운영을 장려
- (메타사이언스) 과학 연구의 수행·조직·연구비 지원 방식을 실증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메타사이언스(Metascience) 분야의 성장을 환영
 - 정부 내 메타사이언스 전담 기능을 구축하고, 효과가 기대되는 방식의 도입을 앞당기는 방향을 제시
- (무결성) 대중의 신뢰가 과학 활동의 토대이며, 이는 연구의 엄밀성(rigor)과 무결성(integrity)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
 - 정부가 과학을 지원·활용하는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적 무결성 기준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세부 기준으로 재현 가능성·투명성 확보, 연구 결과의 오류 가능성과 불확실성의 투명한 공개, 편향 없는 동료평가, 부정적·무(無)결과(negative and null results)를 과학적 기여 인정을 제시

② 초지능(SI)의 과학 적용 (Harnessing Super Intelligence for Science)

- 초지능이 기존 연구 활동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과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
 - 과학 연구 과정 전반에 초지능을 신중하게 접목하는 연구를 장려하고, 활용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
 - 방대한 지식을 아우르는 추론
 - 물리·생물 시스템의 고정밀 모델 구축
 - 자율적 폐루프(closed-loop)* 방식의 연구 수행
- * 실험의 전 과정을 연구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
- 초지능 도구, 과학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실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③ 과학 인재 양성 (Cultivating Talent Across the Scientific Enterprise)

- 과학의 지속적 발전은 차세대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공유
- 잠재력이 높은 학생과 신진 연구자를 능력에 따라(on the basis of merit)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담대한 연구에 필요한 지원·자율성·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다수의 기술 분야에서 과학적 아이디어와 함께 첨단 장비를 운용·유지·개선할 인력이 발전의 관건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실무 경험(hands-on experience) 기회 확대를 장려
-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 학위과정(joint doctoral programs), 펠로우십, 공동연구를 장려

□ 향후 방향

- 각국은 자국 체계 내에서 연구제도 혁신, 초지능(SI)을 활용한 연구 가속화,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기회 확대를 추진
-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과학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

3 미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흐름 및 교토 비전의 의의

□ ‘과학의 황금기’ 구상의 추진 경과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의 황금기(Golden Age)’ 구상은 대통령 서한(‘25.3.)에서 출발하여 OSTP 보고서(‘26.7.)로 구체화되었으며, 교토 비전(‘26.10.)을 통해 국제 무대로 확장
 - (‘25.3.) 트럼프 대통령은 크라치오스 OSTP 실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혁신의 황금기’를 표방하고, 21세기 환경에 맞는 미국 연구개발 생태계의 재검토를 지시

* A Letter to Michael Kratsios, Director of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26.7.) 크라치오스 실장은 그 답변으로 보고서 「Science: A New Golden Age」를 제출하고, FY2028 R&D 예산 우선순위 메모를 통해 연방 R&D 부처에 9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
- ('26.10.) 미국은 STS 포럼을 계기로 보고서의 핵심 방향을 담은 교토 비전을 발표하고 17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자국의 연구체계 혁신 구상을 국제 공동 의제로 확장

※ 백악관은 10월 8일(현지시간) 교토 비전의 후속 행사로 'Science: A New Golden Age Summit'을 개최할 예정 (AIP, '26.10.5)

-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전환은 기술 패권 경쟁과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선형적 연구 개발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AI for Science 및 혁신적 연구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
- 백악관은 교토 비전 발표문에서 이 보고서를 함께 소개하며, 보고서가 연방 기관의 R&D 수행·지원 성과 측정 방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

〈 OSTP 보고서 'Science: A New Golden Age' 개요 〉

-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OSTP 실장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26.7.21.)로, 1945년 바네바 부시의 '과학, 끝없는 프런티어' 이후 80여 년 만의 미국 과학기술 체계 전면 개편 구상
- (**과학기술 재부흥**)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과 몰입을 강화하고 고위험·고성과 연구를 지원하는 유연한 R&D 자금 배분 및 차세대 연구 조직 모델 도입을 통해 미국 과학기술 생태계의 재도약을 추진
- (**신흥기술 분야 주도권 확보**)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연방 연구 인프라 개방, 민관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연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
- (**과학기술 참여 기반 확대**) STEM 교육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위 중심 진입 장벽 완화와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의 사회적 확산 기반 마련
- (**새로운 황금기**) AI를 중심으로 국가 R&D 체계와 연구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제네시스 미션 추진을 통해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추진

□ 교토 비전의 성격: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적 확장

- 교토 비전의 3대 추진 방향은 OSTP 보고서의 권고를 국제 공동 선언의 형태로 압축한 것으로, 각 방향은 보고서의 아래 내용과 대응
- (**연구제도 혁신**) 연구비 지원체계 포트폴리오, 새로운 연구기관 모델, 메타사이언스 전담 기능은 '미국 과학기술 생태계 재건'(2장)에, 과학적 진실성 기준은 Gold Standard Science*의 제도화를 권고한 '새로운 황금기'(5장)에 대응
- (**초지능(SI)의 과학 적용**) 초지능의 연구 과정 통합, 페루프 연구, 인프라 접근성 확대는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확대와 페루프 자율실험실 확산을 권고한 '새로운 황금기' (5장)에 대응
- (**과학인재 양성**) 능력 중심의 학생·신진 연구자 지원은 2장, 산·학 간 펠로우십 등 연구 교류는 3장 (핵심·신흥 기술 주도권 확보), 장비 운용 인력의 실무 경험 확대는 4장(삶의 질 향상)에 각각 대응

* Executive Order 14303, 「Restoring Gold Standard Science」('25.5.), 교토 비전의 진실성 세부 기준은 모두 동 행정명령의 9개 원칙에 포함

- 이처럼 자국 보고서의 권고를 국제 공동 선언으로 확장한 것은, 범세계적 다자 규범보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연대를 우선하는 미국의 최근 과학기술 외교 기조를 반영
 - 크라치오스 실장은 교토 비전에 앞서 UN 안전보장이사회('26.9.23.)에서 초지능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시도를 전면 거부하고, 파트너 국가의 '주권적 초지능 역량' 확보를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백악관은 교토 비전 발표문 제목에서 이를 미국이 이끈 '국제 연대(International Coalition)'로 표현하였으며, 크라치오스 실장도 교토 비전은 세계가 미국과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
 - 미국은 이러한 연대를 통해 OSTP 보고서의 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초지능 기반 과학(SI for Science)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협력 구도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

4 시사점

□ 교토 비전은 연방 기관의 '초지능(SI)' 용어 사용을 공식화한 직후 채택된 공동 선언으로, AI를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약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행정명령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기술 수출을 일관되게 추진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AI 관련 행정명령·계획

행정명령·계획	주요 내용
위험 행정명령과 조치에 대한 1차 취소 행정명령 (E.O.14148 / '25.1.20.)	• AI 개발사의 안전성 시험 결과 보고 의무 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행정명령(14110호) 폐지
미국 인공지능 주도에 대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 (E.O.14179 / '25.1.23.)	•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 유지·강화를 정책 목표로 규정 • 180일 내 AI 액션플랜 수립 지시
AI 액션플랜 ('25.7.23.)	• 혁신 가속,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주도의 3대 축 • 90여 개 연방 정책 과제 제시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관련 연방허가의 신속처리 행정명령 (E.O.14318 / '25.7.23.)	•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의 연방 인허가 신속화
미국 인공지능기술의 수출 촉진 행정명령 (E.O.14320 / '25.7.23.)	•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신설 • 미국산 풀스택 AI 기술 패키지의 동맹·우방국 수출 촉진
제네시스 미션 출범 행정명령 (E.O.14363 / '25.11.24.)	• AI로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기 위한 국가 임무 '제네시스 미션' 출범 및 '미국 과학·안보 플랫폼' 구축
초지능 시대 개막 (E.O.14434 / '25.9.29.)	• 행정부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초지능(SI)' 용어 사용 • 60일 내 SI의 연방 법적 정의 입법안 마련 지시

- 이러한 기조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어, OSTP 보고서('26.7.)는 'AI 혁명에 대비한 연구체계 구축'을 4대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고 교토 비전도 초지능의 과학 적용을 3대 추진 방향의 하나로 명시

- 최근에는 용어 자체를 '초지능(SI)'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 추진 강도를 한층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26.9.22.)에서 '초지능' 용어를 사용한 데 이어, 행정명령 14434호를 통해 행정부의 공식 용어를 AI에서 SI로 변경
 - ※ 행정명령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의 수준을 크게 넘어 '단순한 인공지능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이르렀으며, 이 기술의 가능성과 잠재력, 빠르게 발전하는 역량을 더 적절히 담아내기 위해 용어 변경 취지를 명시
 - ※ 이재명 대통령 또한 범용지능(AGI)를 넘어선 초지능(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를 핵심 자산으로 강조 (청와대, '26.4.9)
- 교토 비전 발표와 같은 날(10.4.)에는 국가정보국장(DNI)을 'AI 차르'로 지명하고, 범정부 조직인 '초지능 태스크포스(Super Intelligence Force)' 신설을 발표 (Reuters, '26.10.4.)
 - ※ 동 태스크포스는 120일 내 초지능의 위험·기회와 연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 교토 비전은 행정명령 14434호 서명 5일 만에 발표된 다자 선언으로, 미국 행정부의 '초지능(SI)' 용어 전환이 국제 공동 문서에 처음 적용된 사례

□ 미국은 연구비 배분·심사 방식을 데이터와 실험으로 검증하는 메타사이언스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토 비전을 통해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

○ 미국은 연구비 지원 방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방 과학기관 내 메타사이언스 조직 설치를 추진

- OSTP '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는 골든티켓·신속 지원·포상 등 새로운 연구비 지원 방식의 도입을 권고하며, 각 연방 과학기관에 심사·지원 방식에 대한 통제실험 권한을 가진 기관장 직속 메타사이언스 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
- NSF는 보고서 이행을 위해 메타사이언스국을 설치하고, 2036년까지 연방 연구비 1달러당 과학 생산성과 영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 메타사이언스는 지원 방식별 효과를 데이터와 실험으로 비교하여 효과 있는 방식은 확대하고 없는 방식은 중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한 데이터 기반 R&D 혁신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짐

○ 정부 내 메타사이언스 조직 설치에 OSTP 보고서의 권고와 교토 비전에 모두 담겼으며, 미국에서는 NSF와 NIH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음

〈표 2〉 OSTP 보고서·교토 비전·연방기관의 메타사이언스 추진 내용

구분	OSTP 'Science: A New Golden Age' ('26.7.)	교토 비전 ('26.10.)	美 연방기관 동향	
			NSF ('26.9.)	NIH ('26.1.~)
현황	권고	공동 선언	설치	신설 추진
조직	· 각 연방 과학기관에 기관장 직속 메타사이언스 조직 설치	· 정부 내 메타사이언스 전담 역량 확보의 필요성 공유	· 이사회 직속 메타사이언스국 설치 및 국장 임명 * Office of Metascience	· 연구경제·기획·분석국 (OREPA*) 신설 추진 * Office of Research Economics, Planning, and Analysis
기능	· 자금 지원·평가 방식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비효율 개선을 주도	· 과학의 수행·조직·연구비 지원 방식을 실증적으로 개선하고 유망한 접근법의 도입 가속	· 연구비 지원·심사·프로그램 관리·신규 도구 도입 방식 개발 및 검증 · 효과 있는 방식은 확대하고, 없는 방식은 중단	· NIH 차원의 메타사이언스 전략 수립 · 재현성 검증 주도 · 기획·평가·성과보고 총괄, 포트폴리오 분석

○ 다만 미국 내에서는 NSF 메타사이언스국 설치가 계획 자체로는 긍정적이나, 동료평가 훼손과 연구비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 (AIP, '26.9.18.)

□ 교토 비전에 대해 연구제도 혁신과 메타사이언스의 국제적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선언의 실효성 및 미국의 과학 예산 기조와의 괴리를 우려하는 시각이 공존

○ (긍정적 평가) 연구제도 혁신과 메타사이언스가 국제 공동 의제로 격상된 점에 주목

- NBC News('26.10.3.)는 교토 비전이 메타사이언스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싱크탱크 Institute for Progress(IFP)는 국제 선언에 메타사이언스가 포함된 것을 국제적 확산의 신호로 평가

- TechTimes('26.10.5.)는 17개국 과학기술 부처가 AI 기반 연구라는 공통 방향에 공개적으로 뜻을 모은 것 자체가 과학·외교적 신호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

○ (부정적 평가) 참여국 구성, 선언의 실효성, 미국 내 과학 예산 기조와의 괴리 등을 지적 (TechTimes, '26.10.5.)

- TechTimes('26.10.5.)는 세계 2위 연구개발 국가인 중국과 주요 STEM 인력 배출국인 인도가 빠짐에 따라, 교토 비전이 서방 우방 중심의 연구 경제권에 국한된 선언이 되었다고 지적

- 선언문이 '노력한다(end endeavor)'는 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재정 공약이나 이행 점검 장치가 없으며, 백악관 발표문의 '약속(pledged)'이라는 표현은 선언문 본문에 없다고 지적

- 미 행정부가 FY2027 예산안에서 NSF 예산의 약 55% 삭감을 제안하고 NSF가 FY2026 연구비 중 10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과학의 황금기' 구호와 실제 예산 기조가 상충한다고 비판

□ 우리나라는 교토 비전 지지국으로 참여하여, 국내에서 추진 중인 R&D 제도 혁신과 AI 기반 연구 정책의 방향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협력 기반을 확보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TS 포럼에 참석하여 교토 비전을 공동 발표했으며, 크라치오스 OSTP 실장과 양국의 과학기술·AI 정책 방향 및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25.10.)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

- 정부는 교토 비전 공동 발표를 계기로 제도·정책 혁신을 지속하고, 관련 국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

○ 교토 비전의 3대 추진 방향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계획에 이미 담겨 있어 정책 방향의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제도 혁신) 투자형 R&D 도입, 과제평가 등급제 폐지 및 '우수도전 과제' 인정 등 R&D 제도 개선을 추진 중

- (초지능의 과학 적용) 과학기술×AI의 결합을 통해 7대 SEED·3대 MEGA 프로젝트 등 분야별 과학·기술·산업적 허들 돌파를 추진 중

- 아울러 연구데이터·GPU·AI모델·자율실험실을 통합하는 국가과학AI통합플랫폼 구축, GPU 확보·공급,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등 연구자의 AI 활용 기반도 확충 중
 - **(과학인재 양성)**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6~’30)」을 통해 인재의 유입·성장·활약을 잇는 전주기 지원 체계(‘Brain Highway’)를 구축하고, Staff-Scientist 제도로 연구 시설·장비 전문 인력을 육성
- 교토 비전은 각국 체계 내 실현을 원칙으로 하므로, 국내 정책의 성과를 비전 이행 사례로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한편 주요국의 후속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미국은 OSTP 보고서 권고를 FY2028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교토 비전 지지국들도 각국 체계 내에서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전망
 - 특히 교토 비전이 정부 내 메타사이언스 전담 기능 구축을 제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을 본격화할 계기로 활용할 필요

- The White House, Kyoto Vision for a Golden Age of Science, 2026.10.4.
- The White House, U.S. Leads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orse Kyoto Vision for a Golden Age of Science, 2026.10.4.
- The White House, Remarks by Director Michael Kratsio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6.9.23.
- The White House, OSTP Director Releases Landmark Report and Recommendations for Renewing American Scientific Discovery, 2026.7.21.
- The White House, White House Fiscal Year 2028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Memonrandum, 2026.7.21.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cience: A New Golden Age – A Report to the President, 2026.7.
-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 Launches the Genesis Mission to Accelerate AI for Scientific Discovery, 2025.11.24.
- The White House,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2025.7.23.
- The White House, OSTP Issues Agency Guidance for Gold Standard Science, 2025.6.23.
- The White House, Restoring Gold Standard Science (Executive Order 14303), 2025.5.23.
- The White House, A Letter to Michael Kratsios, Director of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25.3.26.
- The White House,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4179), 2025.1.23.
- The White House,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Executive Order 14148), 2025.1.20.
- TechTimes, Kyoto Vision Rallies 17 Nations for AI-Powered Science: No Budget, No Binding Vows, 2026.10.5.
- AIP FYI, Science Policy This Week: Oct 5, 2026, 2026.10.5.
- AIP FYI, Researchers Skeptical of NSF Metascience Plan, 2026.9.18.
- Reuters, Trump names intelligence chief Clayton as AI czar, to head task force, 2026.10.4.
- Science, Trump adviser’s Golden Age report on U.S. science is a missed opportunity, critics say, 2026.7.28.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What Does it Take to Deliver a New Golden Age?, 2026.7.3.
- KISTEP, 미국 OSTP 「과학, 새로운 황금기 (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6.07.31.

저자

KISTEP 혁신전략기획센터 정여진 부연구위원 (yjeong17@kistep.re.kr, 043-750-2590)

KISTEP 혁신전략기획센터 전부기 부연구위원 (bchun@kistep.re.kr, 043-750-2670)

KISTEP 혁신전략기획센터 최창택 센터장/연구위원 (ctchoi@kistep.re.kr, 043-750-2423)